

호주 브리즈번 국외연수

‘19. 9. 16. ~ 9. 22. / 5박 7일

---

- 직업교육과 안전분야 벤치마킹을 위한 2019년도 교육안전위원회 -

# 공무국외활동결과보고서

---

2019.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 목 차

I . 활동개요 .....	1
II . 방문국 정보 .....	3
III . 연수 내용 .....	11
1. TAFE Queensland Nambour Campus	
2. TAFE Queensland SouthBank Campus	
3. Depart for SkillsTech(TAFE QLD Acacia Ridge)	
4. Sarina Russo Institute	
5. Queensland Combined Emergency Services Academy	
6. THE Queensland Korea War Memorial	
IV . 기타 문화체험 및 견학 사진 .....	45
V . 연수 후기 .....	49

# 공 무 국 외 활 동 결 과 보 고

## I 활 동 개 요

□ 기 간 : 2019. 9. 16.[월] ~ 9. 22.[일] / 5박 7일

□ 연수단 구성 : 14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0명(의원 6명, 공무원 4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2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2명

□ 방 문 국 : 오스트레일리아

□ 목 적

- 직업교육 정책을 수집하여 세종시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 연구
- 특성화고 및 기술전문분야의 우수 교육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세종시의 교육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
- 호주의 소방·안전 정책을 참고하여 세종시 소방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 보고서 작성자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 □ 참가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
	위 원	윤형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 장	서금택
의회사무처	서기관	선정호
	주무관	이수진, 임재인, 김혜지
세종시교육청	과 장	양현석
	장학사	김혜옥
세종시청	사무관	추광숙
	소방령	김영근

## □ 주요일정

일 차	도 시	방 문 지	내 용
제1일	브리즈번	(국가이동)	◦ 홍콩 경유
제2일	선샤인 코스트	◦ TAFE Queensland Nambour Campus	◦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제3일	브리즈번	◦ TAFE Queensland South Bank Campus ◦ Depart for Skills Tech (TAFE QLD Acacia Ridge)	◦ 간호, Dental, 영어연수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 목공, 자동차엔지니어링, 용접 등 관련 교육에 대한 이해
제4일	브리즈번	◦ Sarina Russo Institute	◦ Sarina Russo Institute의 실습기관인 볼튼클럽 견학
제5일	브리즈번	◦ Queensland Combined Emergency Services Academy	◦ 소방 안전 교육현장 견학
제6일	골드코스트	◦ THE Queensland Korea War Memorial	◦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
제7일	인천	(국가 이동)	◦ 홍콩 경유

## II

## 방문국 정보

###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영국연방(英國聯邦)에 속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테즈메이니아섬 등을 국토로 한다. 1788년 1월 26일 영국이 최초로 유럽인 정착지를 세운 이래 영국의 식민 상태였다가 1901년 1월 1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발족하였다.

정식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이다. 북쪽은 티모르해(海), 동쪽은 산호해·태즈먼해, 남쪽과 서쪽은 인도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섬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대륙이다. 6개주,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주·노던준주(準州)와 노퍽섬, 매쿼리섬, 로드 하우스섬, 크리스마스섬, 허드섬·맥도널드 군도, 코코스(킬링) 제도, 산호해 군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와 특별구역은 722개의 작은 지방자치구역으로 구분된다.

### 오스트레일리아 전도



## 1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떤 나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이다. 6개의 자치주와 2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주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와 같은 강력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 정치는 영국식 내각 책임제에 미국식 연방 제도를 도입한 형태이다. 때문에 영국 여왕을 수장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방 정부는 연방 총독이, 주 정부 6개는 총독이 대표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768만 6,850km<sup>2</sup>로 대륙으로는 가장 작지만, 국가로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이다. 반면 인구는 2,201만 명(2012년 기준)으로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인구 구성은 유럽계가 92%로 가장 많으며 아시아계 7%, 원주민 어보리진이 1%를 차지한다.

## 2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가 넓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이 적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이다. 대륙 중앙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건조 기후의 사막으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지만, 국토의 3분의 1은 열대성 기후에 속해 전기와 우기로 나누어진다.

동부, 남부, 남서부는 연중 따뜻하고 맑은 날이 많은 기후로 비옥한 곡창 지대이며 인구 대부분은 대륙 동쪽의 해안선을 따라 거주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이 우리나라와 정반대이다.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름은 12월에서 3월 사이이며, 크리스마스에도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 3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행정 조직은 「연방정부 - 교육부 - 주정부 교육부 - 시교육청 - 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NSW(Depart 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교육청은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규모로 교육정책을 수립, 커리큘럼의 개발과 지원, 각종 협동 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일을 한다. 교육청은 필요에 따른 교사 재교육, 교육자료 보급, 학교 운영 감사, 학생대상 경진 대회 등을 실시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방과 주 정부가 있고 각 정부마다 서로 다른 교육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여섯 개의 주와 도개의 정부들은 공립학교의 교육정책, 학교 설비, 교사, 강의 요목 그리고 교사 재원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는 법률에 규정된 포괄적인 목표 이외에는 교육적인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은 연방 정부의 엄격한 감독 하에 질적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교육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강조하여 학생 개개인의 자질과 잠재 분야를 키워주고 관련 산업체와 연계가 잘 되어 있어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영어 교육 국가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학교들은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와 기업, 교육 기관 등으로부터 인정받아 많은 유학생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찾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법으로 유학생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유학생들도 오스트레일리아 학생들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3-1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과정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과정은 초등교육(6년), 중학교육(3년), 고교교육(3년), 대학교육(3~4년)으로 구성된다. 의무교육 기간은 초등과정 6년부터 중학과정 3년까지 총 9년으로, 15세까지이다.

\* 태즈메이니아주는 16세까지

대학을 제외한 공립 교육과정 12년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정부가 관장하고 있어 각 주마다 학교제도와 교육행정에 차이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학교육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장된다.

### 3-2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학교육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학은 각 주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지만 중앙정부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상당 부분 지원해 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학은 대부분 공립이며, 2011년 기준 39개 대학의 총 학생 수는 약 114만 명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국립대학은 수도 캔버라(Canberra)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시드니 대학교(University of Sydney) 멜버른 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모나시 대학교(Monash University) 등이다.

1987년 오스트레일리아는 사립학교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요 사립 대학으로는 골드 코스트(Gold Coast)에 설립된 본드 대학교(Bond University)와 서부오스트레일리아 퍼스(Perth)에 자리한 노트르담 대학교(University of NotreDame) 등이 있다.

### 3-3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술전문 교육

오스트레일리아는 ‘주립기술전문대학(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술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는 주로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이 입학하여 기술을 배우는데, 여기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 61곳에 주립기술전문대학 기관을 두고, 약 171만 명(2009년 기준)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 3-4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 수출 산업

오스트레일리아 교육 수출 산업은 2010년 기준 191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Australian dollar, AUD)의 수익을 기록하였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수출 산업 중 서비스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이다.

오스트레일리아로 유학을 온 학생들의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24%, 인도 18%, 한국 6% 등이다. 주별로 교육 수출로 인한 소득은 뉴사우스웨일스 68억 달러, 빅토리아 59억 달러, 퀸즐랜드 28억 달러, 기타 주 36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 4 퀸즐랜드주(Queensland)



**위 치**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경위도** 동경 143° , 남위 23°

**면 적** 1,727,200km<sup>2</sup>

**시간대** UTC+10

**행정구분** 11 Region

**주 도** 브리즈번(Brisbane)

**행정관청 소재지** 100 George Street Brisbane City East Queensland 4002 Australia

**홈페이지** <http://www.qld.gov.au/>

**인 구** 5,070,821명 (2019)

**상 징** (꽃) 쿡타운 난(Cooktown orchid) (새) 브롤가(Brolga)



퀸즐랜드주 동부에 그레이트디바이딩산맥(대분수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고, 이것과 병행하여 해안에 그레이트배리어리프(대보초)가 늘어서 있다. 서부는 대륙 내부 분지의 일부로서 낮은 언덕과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가 열대·아열대에 가까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린다.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북동해안의 연강수량은 4,500mm에 이르며 서쪽으로 갈수록 적어진다. 열대우림·아열대우림·침엽수 관목림이 자라고 내륙 분지에는 아카시아숲과 초원지대가 흔하다.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붉은 캥거루·코알라 등의 유대류(有袋類)와 앵무새·에뮤 등의 조류, 1,500종이 넘는 어류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한다.

동해안에서는 자국 내 생산량의 70%에 이르는 사탕수수가 산출된다. 내륙의 목초지대에서는 양과 젖소, 육우가 사육되고, 잎담배·설탕·땅콩·면화 등의 농산물과 다양한 과일, 야채가 생산된다. 이밖에 요크반도에 있는 웨이파의 보크사이트 자원 개발 등의 광산업과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5

브리즈번(Brisbane)



**위 치**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 남동부

**경위도**

동경 153° , 남위 27°

**시간대**

UTC+10

**면 적**

5,904.8km<sup>2</sup>

**인 구**

약 2,400,000명 (2017)

브리즈번은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주(State of Queensland(QLD))의 主都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며, 모턴만으로 플러드는 브리즈번 강의 하구로부터 22km 상류에 위치하고, 기후는 다소 아열대적이며, 연평균기온 20.56℃로 시가지는 강으로 양분되나, 스토리교를 비롯한 4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 Ⅲ

## 연수 내용

### 개 요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Queensland

- TAFE Queensland는 브리즈번 시내에 위치한 TAFE으로서 130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60,000개 이상의 자격을 발급했으며, 89% 졸업생이 취업하거나 보다 상급 과정으로 진학한다.
- 퀸즐랜드 최대의 가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 제공 기관으로 퀸즐랜드의 50개 이상의 지역에서 초급 인증서부터 학사 학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실질적인 업계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 TAFE Queensland 목표

#### ◦ 비전

지역 사회 성공의 핵심인 직업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선도적 제공자

#### ◦ 미션과 사명

학생들의 경력과 산업, 지역 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양질의 교육 훈련을 제공

#### ◦ 가치

학생들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교육 및 훈련 제공 업체로서 TAFE Queensland의 명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

- 학위, 디플로마 등을 통해 실습 학습으로 대학 사고를 습득하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배우고, 일을 준비하고. 강의실 밖으로 나가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TAFE QLD에 30년 동안 700만 명이 넘는 학생이 공부했으며, 그 중 4,000여명의 유학생 중 10%인 400여명이 한국 유학생이라고 한다.
- TAFE Queensland의 1년 운영비는 6,200억 정도이다.

## □ 교육과정 및 자격증

### ○ 수료증 과정(certificate 1~4)

특정한 분야에의 취업 또는 상위 과정 진학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수주~6개월의 다양한 기간의 과정이 certificate 1~4까지 4단계에 걸쳐 있다. certificate1 과정을 통해서 기초적인 기술을 익혀 직업 일선에 뛰어들거나, certificate4의 과정을 통해 좀 더 심화된 기술과 디플로마 과정(Diploma)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다.

### ○ 디플로마 과정(Diploma)

Diploma과정부터 정식학위 과정에 해당하며, 한국의 전문대학 졸업장에 해당한다. Certificate을 이수하고, 보다 심화된 기술을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의 과정으로, 이를 이수한 유학생들에게는 현지 대학의 2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며, 기술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학과와 신청자의 수준에 따라 학위 취득까지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걸린다.

### ○ 고급 준학사 과정(Advanced Diploma)

TAFE과 일부 대학에서도 제공되는 Diploma이상의 고급과정으로 졸업생들은 전자공학, 건축학, 과학, 경영과 같은 분야의 산업체로 진출하거나, 대학교 2~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Diploma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그 외에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 ○ 학위 프로그램(Degree Programs)

TAFE의 일부 과정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대학으로 직접 입학하는 것과 같도록 학교간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편입은 대학이 TAFE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해 줌으로 대학에서의 공부하는 기간이 1~2년 정도 감소된다.

## □ SkillsTech

- SkillsTech는 브리즈번 외곽에 위치한 TAFE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토요다 등 외국기업에 의한 자동차 정비과정을 개설한 사례가 있고 외국 자동차회사가 호주 내에 자국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고속련 정비사를 양성과정을 TAFE과 협력하고 있다. 협력은 시설 및 기자재 일부와 훈련교사를 TAFE에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브리즈번 또는 퀸즐랜드 주에서 Hospitality와 Tourism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브리즈번 TAFE에서는 Certificate III는 취득할 수 있으나, 보다 상급단계인 Diploma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Hospitality Commercial Cookery(Certificate III)와 같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Hospitality Commercial Cookery( Certificate IV)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이럴 경우 TAFE Queensland로의 브랜드 단일화 이전에는 이러한 개설 과정의 연계가 쉽지 않았으나 현재는 인근 지역 TAFE의 상위과정으로 자격 연계가 가능해졌다.

# 1 TAFE Queensland Nambour Campus

## 방문개요

- 날 짜 : 2019. 9.17.(화)
- 장 소 : 91 Windsor Rd, Burnside QLD 4560
- 안내자 : Mark Robertson, Robert Della-Piana
- 방문내용 : TAFE QLD Nambour Campus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 일반 현황

- Nambour는 Blackall Range 기슭의 Sunshine Coast 배후에 있다. Nambour는 Sunshine Coast 캠퍼스 중 최대 규모이며 시내 중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다. 울창한 아열대 우림 배후지에 위치한 캠퍼스에는 정원, 잔디밭, 토착 나무 및 구불구불 한 개울이 있는 아름다운 조경지가 있다.
- 다양한 목적에 맞는 시설을 갖춘 Nambour 캠퍼스는 다양한 학습 영역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공간, 라이브 공연 등이 가능한 공간 또한 준비되어 있다. 연구 분야에는 건물 디자인, 보존 및 토지 관리, 건축, 그래픽 디자인, 원예, 인테리어 디자인, 음악 및 사진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 자동차 서비스 기술 인증서 II는 초급 과정 자동차 서비스 기술로 이 자격을 통해 다양한 자동차 직종에서 견습 과정을 찾을 수 있다. 이미 취업한 상태라면 이 과정을 교육생으로 이수 할 수도 있다.
- 이 과정에서는 경차량, 중차량에서 다양한 서비스 작업을 수행하



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게 된다. 엔진, 제동, 냉각 시스템과 같은 자동차 시스템부터 사소한 검사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배우게 된다.

- 이 과정은 경량 또는 중형 차량 정비사, 자동차 전기 기술자, 디젤 조립 기술자 또는 실외 전력 장비 기술자 등 광범위한 자동차 직종에서 견습 과정을 찾는 과정을 안내한다. 자동차 서비스 또는 수리 사업에서 차량 서비스 보조 또는 자동차 부품 통역사로 취업 할 수도 있다.
- 교육 지원 증명서 III는 초급 과정을 통해 다양한 학교 환경에서 교사 보조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과정이다. 사립 또는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초 기술을 제공한다.
- 호주 정부의 Job Outlook 서비스에 따르면 교육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약 8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매우 큰 직업이다.
- 우리나라의 교육공무직과 비슷한 직종을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인다.
- 이 과정에서는 학생의 수리·문해력 및 의사소통 기술 지원, 위험에 처한 학생 지원 및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협력과 같은 핵심 기술을 다룬다.
-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교사 보조원 또는 교육 지원 담당자로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건축 및 건설 Certificate IV (건물)이 과정을 이수하면 Builder-Low Rise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Job Outlook

서비스에 따르면, 건설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지난 5년 동안 매우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 동안이 분야에 약 54,000개의 일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 이 과정에서는 건축 공사 계획을 세우고 구조 원리를 적용하며 현장 공사를 감독하는 방법을 배운다. 건축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산업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및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 또한 계약 관리 및 소기업 재무 관리 방법과 같은 비즈니스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다. 이 자격을 갖추면 Builder-Low Rise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주거용 건물 사업을 할 수 있다.
- 음악 산업에서 Certificate III는 저작권으로 음악을 보호하고 전자 미디어를 사용하여 음악을 작곡하며, 연주 기술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운다. 수년간의 업계의 경험을 쌓은 실력 있는 교수진이 음악 업계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다.
-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실무 음악가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음악 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기술을 얻을 수 있다.
- 그래픽 디자인 디플로마 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그래픽 디자인 세계에서 성장 할 수 있는 전문 기술과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마케팅 전략 및 프로젝트 관리를 포함하여 모든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전문 기술을 배우게 된다.

- 호주 정부의 Job Outlook 서비스에 따르면, 그래픽 및 웹디자이너 및 일러스트레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역할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간이 직종에서 약 2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한다.
- 이 과정에서는 기술 및 이론적 디자인 원칙과 일상적인 디자인에서의 적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공동작업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면서 웹 디자인, 사진, 타이포그래피, 브랜딩, 디지털 및 온라인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및 포트폴리오 디자인에 대한 실습을 하며 창의적인 재능을 기르게 된다.
- TAFE Queensland 졸업장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창의 산업 환경 내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또는 디지털 아티스트로서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작업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다.



**질 및 답변**

질문1	TAFE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수업료가 꽤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TAFE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다만 유학생에게는 수업료가 비쌀 수 있으나 호주 학생들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수업료가 비싼 편은 아니다.
질문2	올 10월에 세종시의 학생 5명이 TAFE QLD에 와서 공부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지?
답변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레벨에 가서 공부할 것이다.
질문3	유학생들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가 되고 졸업 후에도 취업 지원 등 관리를 하는지?
답변	호주학생의 대부분, 89%정도는 비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졸업 전에 많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TAFE 학생들이 졸업할 때 TAFE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주지는 않는다. 다만 학생들이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TAFE의 실습장이 산업 현장과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 현장과 동일하게 실습이 가능하다. 실습 후에는 실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인력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현장실습을 하고 그 쪽에서 많은 일자리를 얻고 있다.
질문4	유학생들의 진로는 어떤가?
답변	유학생의 87%가 일자리를 구한다. 그 외 학생들은 상위 과정이나 대학 등으로 진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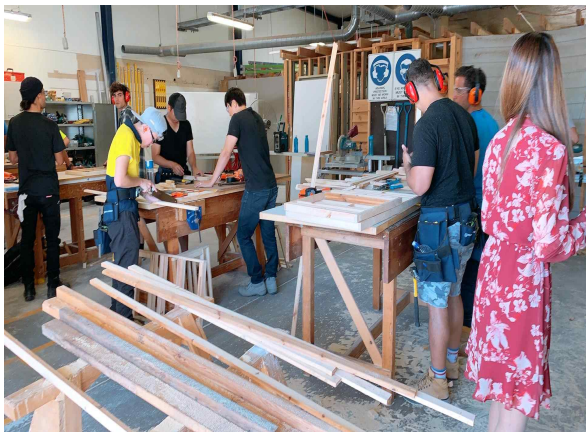
질문5	TAFE QLD의 교수진 경력은 어떠한가?
답변	TAFE QLD의 모든 교수진들이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분들이고, 현재도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바로 교육시켜 현장에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6	TAFE QLD의 교사 신분(소속), 급여주체는?
답변	TAFE QLD 소속으로 급여를 받으며, 지방공무원 수준(주정부 공무원)이다.
질문7	원예 과정을 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 과정을 변경할 수 있는가?
답변	변경할 수 있다. TAFE 안에서 코스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일정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처음에 신청한 과정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등록했던 모든 과목을 그만두고 새로운 코스로 등록하여 다시 수강할 수 있다.
질문8	TAFE 내에서 프로그램은 같지만 다른 Campus로 바뀌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가?
답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예학과가 설치된 학교가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나, 코스가 비슷하다면 유닛을 맞춰봐서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 비슷한 학과가 운영되는 학교로 전학은 가능하다
질문9	학생들을 퇴학 시킬 수 있는가?
답변	아니다. 어쨌든 이 학생들을 지원한 코스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Nambour Campus 안내]



[의회 및 시청 홍보자료 전달]



[목공 실습장]



[한국 유학생과의 만남]



[원예 실습장]



[Nambour Campus 단체 사진]

## 2 TAFE Queensland South Bank Campus

### 방문개요

- 날 짜 : 2019. 9. 18.(수)
- 장 소 : 66 Ernest Street, South Brisbane QLD 4101
- 안내자 : Ms Kiah Abbott, Ms karen lones, Mr Andrew Ferguson
- 방문내용 : 간호, Dental, 영어연수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 일반 현황

- South Bank Campus는 간호, 미용, 건물 디자인 및 장식, 비즈니스, 간호 지역 사회 서비스, Dental, 영어연수, 엔지니어링, 시각 및 창조적 예술과 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South Bank Campus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및 주립 도서관과 인접한 브리즈번 예술 및 문화 구역의 중심부에 위치
- 보건 분야는 호주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80%가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고 있다. TAFE Queensland에서는 특수교육 시설과 숙련된 교사 및 취업 지원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18개월 만에 간호, 환자 건강 분석 및 관리, 약물 모니터링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
- TAFE Queensland 간호 학생은 생체 신호 모니터, 반응형 컴퓨터 시뮬레이터 마네킹 등이 구비된 임상 실험실에서 공부한다.



- Diploma of Nursing (간호학 디플로마)은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등록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또는 고급 간호학 디플로마를 통해 간호 기술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노인 간호, 응급 치료, 지역 사회 건강, 비판적 치료, 정신 건강, 수술 전 또는 신장 치료와 같은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간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호주 간호 및 조산위원회에 등록 할 수 있다. 또한 간호학 학사 학위를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인 간호사로 일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다.
- 치위생 관련 과정으로 치과 보조, 치과 기술 및 치과 보철 과정이 있다. 치위생사는 치과 의사와 함께 일하며 치과 방사선 촬영, 구강 건강 관리 절차 및 멸균 장비 관리를 한다. 치기공사는 맞춤형 인상 트레이를 만들고, 이동식 아크릴 틀니와 합금 프레임을 만들고, 크라운과 브리지 구조를 만든다. 치과 보철 전문가는 전체, 부분 의치, 치과기구 및 구강 보호대를 만들게 된다.
- 인구 고령화와 개인 건강 보험 추가혜택을 받는 시민의 증가로 향후 5년 동안 구강 건강관리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질문 및 답변**

질문1	Nambour Campus하고 South Bank Campus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변	Nambour Campus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술이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South Bank Campus는 물론 Nambour Campus 프로그램도 있지만 치위생, 간호학, 토목공학 같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 과정을 제공한다.
질문2	일반 고등학생들의 얼마정도가 TAFE에 참여하는가?
답변	매년 한 12만 명 넘는 학생들이 TAFE QLD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기는 하지만 대학교를 갔다가 공부하는 학생들, 경력을 쌓기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학생들로 다른 대학교를 합친 것 보다 많은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질문3	학생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고, 수료증에 평가점수가 기록되는지?
답변	TAFE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이론과 실습이 병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학생들이 종이로 보는 시험을 보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선생님 앞에서 시연하는 시험을 치루기도 한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한국처럼 점수제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통과여부만 확인한다. 그래서 Pass or Fail, 졸업할 때 졸업장과 공부한 과목의 통과여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받게 된다.

질문4	TAFE 교사들은 정년이 보장되는지 아니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답변	TAFE QLD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로서 교육부 소속이며, 따라서 일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은 교육부장관한테 보고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1년에서 2~3년 정도 계약직으로 일하시는데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정규직으로 일하는 교사도 있다. 교사들은 매년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적어도 2주 정도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현재 산업계에서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학교에서 산업현장에 맞게끔 교육을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질문5	계약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급여수준은?
답변	교사의 계약조건이 아닌 교사의 경력이나 등급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있다 프로그램 개설시 등록된 학생에 따라 교사의 등급, 수업시간, 학비가 결정 된다. TAFE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특별히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과목과 관련된 현장에서 10년~15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고 certificate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질문6	TAFE하고 기업과의 관계는?
답변	TAFE QLD와 산업 현장과는 강한 유대관계가 있다. TAFE QLD에서 가장 장점으로 뽑는 것은 실질적인 산업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산업 현장에 나가서 적어도 2주 정도 상황을 익히고 교육에 대해 서로 논의한다. 산업현장과 동일한 최신시설이나 장비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질문7	학생들의 취업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하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취업을 알선 해 주는지?
답변	TAFE QLD에서 따로 일자리를 알선해 주지는 않고 학생들한테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질문8	TAFE South Bank의 간호학 실습실에 대한 설명 요구
답변	이 곳의 장점은 학급의 규모가 작아 1명의 교사가 14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여러 문화권에서 오기 때문에 최상의 것에 맞춰서 교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장비들은 퀴즐랜드 보건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질문9	비영어권 학생들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일단 간호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ILT 영연방국가에서 인증할 수 있는 영어점수가 있어야 하고 그 수준이 ILT7정도는 받아야 한다.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 천천히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으나 좀 더 실습장에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진행한다.
질문10	간호학을 전공하는 재학생 중 20%가 유학생이고, 20%를 제외하고 15%가 비영어권학생인데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답변	일단 유학생들은 ILT7을 무조건 획득하여야 하나 호주에서 영주권자, 시민권자들로 현지에서 태어나지 않고, 현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은 BKSD라는 수학과 영어를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서 레벨 3정도는 받아야 입학이 가능하다.
질문11	병원에서 간호사 연령제한은 없는가?
답변	연령제한은 없다. 74세인 분도 병원에서 일하신다.
질문12	과목마다 마네킹이 다를 텐데 어떻게 실습을 하는지?
답변	일단 실습장은 요양보호사라는 과정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하는 실습장이고 이런 디플로마 간호학 준학사를 공부하는 장소는 같으나, 마네킹마다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실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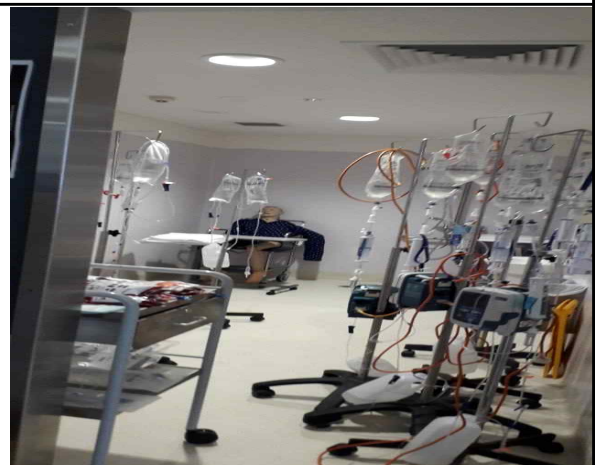
[간호학과에 대한 설명 청취]



[간호학과 실습장 I]



[간호학과 실습 마네킹과 함께]



[간호학과 실습장 II]



[Dental에 대한 설명 청취]



[영어어학연수 한국 유학생과의 만남]

### 3 Depart for SkillsTech (TAFE QLD Acacia Ridge)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9. 18.(수), 13:30~16:00(2시간30분)
- 장 소 : 247 Bradman Street, Acacia Ridge QLD 4110
- 안내자 : Ms Basil Harvey, Mr Chris Kroehn
- 방문내용 : 목공, 자동차엔지니어링, 용접 등 관련 교육에 대한 이해

#### 일반 현황

- Depart for SkillsTech Campus는 22ha(66,550평)에 걸친 주력 무역 교육 센터이며, 브리즈번 도심에서 약 15km 떨어진 브리즈번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 Acacia Ridge Campus는 자동차, 용접, 건축 및 건설, 전기 기술, 엔지니어링, 제조 및 설계, 자원 및 광업 광범위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 ○ 전기 기술 분야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업계에서 고용된 사람들의 수가 매우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Job Outlook 서비스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전기 기술자를 위한 약 26,000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과정은 기본 전기 기술 작업은 물론 복잡한 전기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된다. 또한 퀸즐랜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한 산업 요구 사항과 전기 견습 과정의

첫 단계에 필요한 일부 장치인 일반 안전 유도 과정(화이트 카드)을 다룬다.

과정을 이수하면 업계에서 엄선된 견습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전기 케이블 링, 장비, 계측, 스위치 기어, 통신, 에어컨 및 냉장 또는 재생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

## ○ 자동차 과정

호주 정부의 Job Outlook 서비스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정비사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약 23,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가까운 미래에도 일자리가 꾸준히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는 전기 및 기계 구성 요소 및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자동차 구성 요소의 기본 제거, 검사 및 재조립을 완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차량정비사, 자동차 전기 기술자 등 광범위한 자동차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

## ○ 공학 과정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MySkills 서비스에 따르면 호주의 제조 및 엔지니어링 산업은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호주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산업은 금속 피팅 및 기계공, 판금, 구조용 철강 및 용접을 포함하여 현재 많은 수요가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피팅 및 터닝, 판금 제조, 보일러 제조, 용접, 주조 및 성형, 디젤, 기계 또는 전기 피팅을 포함한 광범위한 엔지니어링 작업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질문 및 답변

질문1	규모가 Nambour Campus 보다 큰데 자동차와 관련된 비중이 얼마나 큰지, 다른 캠퍼스에 비해 큰데 얼마나 되는지?
답변	<p>일단 SkillsTech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 중 가장 크며, 다른 캠퍼스에 비해 학생수가 10배 정도 많은 2,000명이 공부 하고 있다. 캠퍼스 크기는 20ha(60,500평) 규모이다. TAFE QLD에 캠퍼스가 64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SkillsTech도 그중에 캠퍼스 중 하나이다.</p> <p>SouthBank, Nambour처럼 퀸즐랜드 전역에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브랜드로 TAFE QLD 학생에게 같은 교육의 질로 교육을 제공하고 동일하게 교육하고 있다.</p> <p>SkillsTech라는 캠퍼스는 좀 더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4군데의 캠퍼스 있는데 Acacia Ridge는 4군데 캠퍼스 중 하나로 여기서 제공하는 코스는 자동차정비, 전기, 용접, 건설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p>
질문2	현재 AcaciaRidge Campus에는 유학생들이 얼마나 있나?
답변	<p>자동차 정비가 규모가 큰 과정 중에 하나로 인기가 많으며, 유학생은 130명 정도로 목수 과목에 100명 정도 재학중이다.</p> <p>과목 중 전기가 가장 인기가 많은 과정이나 유학생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p>
질문3	TAFE QLD AcaciaRidge Campus와 산업계의 관계는?
답변	<p>산업계와는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광산업, 천연가스, 철도와 파트너십이 잘 되어있어 회사들과 아주 가깝게 일하고 있다</p>



질문4	Skills Tech의 교육은?
답변	<p>SkillsTech에서 Certificate 1~2, 3, 4, 준학사, 고급 준학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많이 수강하는 것은 Certificate 3~4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이보다 높을 필요가 없고 회사에서 채용할 때도 Certificate 3~4 졸업자를 채용하고 있다. 그 이상의 레벨은 본인 스스로 능력 향상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Certificate 3, 4를 공부하고 있다.</p> <p>또한 한국의 경우, 취업 후 교육훈련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교육 훈련을 받은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p>
질문5	용접 실습에 대한 설명?
답변	<p>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용접하는 것처럼 플라스틱을 가지고 가상 용접을 하는 실습장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용접하는 작업을 하면 모니터에 보인다.</p> <p>모자를 쓰고 가상으로 용접을 하는 것으로 모자 속 스크린을 통해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며, 실제 용접하는 것처럼 불꽃이 터거나 연기가 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화면으로 보며 용접 시뮬레이션 과정 등을 서로 의논을 한다.</p> <p>2~3일 정도 가상 실습 후 실제 용접 작업에 투입하고 각 과목마다 기술 용어를 충분히 이해한 뒤 연습을 하고 실제 실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이해도가 높아진다.</p> <p>용접이 단순히 하나의 쇠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용접하는 등 고도의 기술 실습을 하는데 기계를 제공한 회사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한 용접부터 고도의 기술을 실습이 가능하다.</p>

질문6	세종에서 10월에 학생들이 연수를 오게 되면 배우는 과정은 무엇인가?
답변	세종에서 오는 학생들에게도 용접 시뮬레이션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2주 영어연수, 2주 직업교육, 2주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질문7	Skills Tech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변	안전이다. 각 실습장이 산업현장과 똑같이 구비되어 있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이다.
질문8	자동차 과정 실습장에서 보면 거의 일본의 차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현대나 기아의 차는 왜 없는지?
답변	한국의 현대와 기아는 실습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회사 자체적으로 실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실습하지 않는다.
질문9	점차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 추세인데 앞으로 현재의 자동차 관련 과정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답변	현재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다. 다만 유학생들에게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전기와 마찬가지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목공 실습장에서의 단체 사진]



[목공에 대한 설명 청취]



[목공 실습장]



[목공 실습장]



[자동차관련 한국 유학생과의 만남]



[자동차 실습장 대한 설명 청취]

## 4 Sarina Russo Institute (Bolton Clarke에서)

### 방문개요

- 날 짜 : 2019. 9. 11.(목)
- 장 소 : 100 Eagle St, Brisbane City QLD 4000
- 방문내용 : Sarina Russo Institute의 실습기관인 Bolton Clarke 견학

### 일반 현황

- Sarina Russo Institute(SRI)는 SRG(Sarina Russo Group)의 일부이다. 1979년에 설립된 SRG는 교육, 훈련, 채용 및 일자리 창출에서 탁월한 명성을 쌓아온 기관이다.
- SRI는 브리즈번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을 갖춘 영어 학교 및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교육 법인으로 사회복지, 관광 및 호텔, 직업기술과정 분야가 특징적이다.
-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Bolton Clarke(노인요양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교육생들의 실습을 실시한다.
- Bolton Clarke는 호주 전역의 가정 간호, 퇴직 생활 및 주거 지역에 걸쳐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인요양보호시설이다



**질문 및 답변**

질문1	Sarina Russo Institute에 대하여 소개?
답변	<p>Sarina Russo Institute는 영어 연수과정, 전문대학과정, 기술 교육과정으로 디플로마코스, 비즈니스 리더쉽 디플로마, 텔레커뮤니티, 엔지니어링까지 확장하였고 현재 100여명의 학생으로 매달 코스가 열리고 있다.</p> <p>Sarina Russo Institute는 교육기관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모든 코스를 마치기 위해서는 매주 정해진 시간만큼 현장 실습을 해야 한다.</p> <p>25년째 영어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한국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p> <p>Sarina Russo Institute에서 교육기관과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있으며, 호주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호주의 문화 풍습 등을 가르치고 이력서 작성, 인터뷰 기술 등 취업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p> <p>취업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나가는데 도와주고 있다.</p>
질문2	Sarina Russo Institute와 Bolton Clarke은 무슨 관련이 있나?
답변	<p>Sarina Russo Institute와 Bolton Clarke은 별개의 기관이지만 Bolton Clarke은 Sarina Russo Institute 교육생들이 와서 실습하는 노인요양보호시설이다.</p>
질문3	TAFE프로그램과 Sarina Russo프로그램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변	<p>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시키고, Sarina Russo는 정부에서 인가해주는 트레이닝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과목에 따라 디플로마, 서티피케이를 가르치는 것으로 정부에서 정해 놓은 디플로마는 어디를 가든 지켜져야 한다.</p> <p>Sarina Russo 같은 사립교육기관은 정부에서 늘 감사를 한다.</p>



[Bolton Clarke 단체사진]



[Sarina Russo Institute 설명 청취]



[요양시설 참관 모습]



[Bolton Clarke 비상대피도]

## 5 Queensland Combined Emergency Services Academy

### 방문개요

- 날 짜 : 2019. 9. 20.(금)
- 장 소 : 15 Howard Smith Drive, Port of Brisbane QLD 4178
- 안내자 : Michael Kocken
- 방문내용: 오스트레일리아 소방 안전 교육 현장 견학

### 일반 현황

**약 어** QFES

**설 립** 1860년

**Motto** 많은 서비스, 많은 기능, 많은 파트너

**지 역** 7개 지역

**구 성** 241개 소방서 1,519단체

**직 원** 풀타임 2,100명, 캐주얼(파트타임) 2,100명, 자원봉사자 36,000명

- 소방 구조 서비스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2,100명의 전문 소방관과 2,100명의 보조(파트타임) 소방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방관들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의 훈련을 이수한다.
- 시민을 보호해 온 소방관들은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퀸즐랜드 자산의 92%와 인구의 95%를 돌본다.
- RFS (Rural Fire Service)

RFS(Rural Fire Service)는 약 36,000명의 지원자, 약 1,400개의

시골 소방대 및 약 2,400명의 소방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 봉사자들은 주로 산불 진화에 투입된다. 현재 퀸즐랜드 소방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긴급 상황에서 소방 및 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 ○ 지역 사회 교육

적시에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교육으로 생명과 재산을 구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 및 구조 서비스 직업 전문 소방관은 많은 학교를 방문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가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 소방대원은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 산불 대응

농촌지역의 소방대는 다른 지역 소방대와 함께 응급 서비스 요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및 주변 지역에서 화재 발생에 대응한다. 현재 하나의 모든 서비스 긴급 상황 모델에서 QFES는 퀸즐랜더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제공된다.

## ○ 국가 응급 서비스

퀸즐랜드주의 응급 서비스는 국가적인 자원 봉사자 조직이다. 모토는 '특별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퀸즐랜드의 재난전담기구인 State Emergency Service(SES)는 24시간 내내 주 전역의 비상사태와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수천 명의 무급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무급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 지역 사회를 도울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으며, 주요 목적은 지역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돕는 것이다.

SES는 긴급 및 재난 발생시 시민들이 자신과 지역 사회의 다른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 SES의 역할

- 폭풍 · 홍수 · 범죄 현장 법의학 수색, 지진 · 절벽 구조, 교통 사고 (도로 / 철도 / 항공, 산사태, 실종자 및 동물 질병)
- 비상 조명, 응급 복지 서비스, 비상 상황 및 비상 통신에서의 트래픽 관리 등

○ 퀸즐랜드소방학교는 소방관뿐만 아니라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원들도 교육하고 있으며, 경찰, 군인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

○ 퀸즐랜드 소방법은 2009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목적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들이 처음의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작동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이 소방학교는 칼텍스 회사와 경계에 있어 칼텍스 회사와 합동소방훈련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 및 답변**

질문1	대피훈련을 얼마나 자주 있는가?
답변	사람들이 입주한 뒤 이틀 내에 하고 그 다음에는 매년 한번 씩 한다.
질문 2	공동주택아파트 같은 경우, 직원들을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훈련은 어떻게 하는가?
답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을 소방시설이나 소방 기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교육시키는데 그것은 보통 사람이 입주한 지 2달 내에 하고 그다음에는 2년에 1번씩 교육을 실시한다.
질문3	어떤 사건 이후 강력한 법률이 제정하였나?
답변	2002년에 칠더스라는 동네에서 배낭 여행객들이 묵는 호텔에서 사고 발생 이후 그 사건을 계기로 2009년에 법이 제정되었다. 1년에 1번씩 사람들이 대피하고 2년에 1번씩 하는 것을 소방서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소방서에 권한을 주는 법을 제정하였다.
질문4	법 제정의 주체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인지 퀴즐랜드 주정부인지?
답변	퀴즐랜드 의회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주정부를 통해서 소방 학교에서 그 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퀴즐랜드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하였다.



질문5	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훈련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그 내부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참여율은?
답변	퀵랜드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훈련을 한다. 참여율을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훈련을 언제 할 것인지 알려주고 하지 않는다.
질문6	소방관이 되기 위한 자격은?
답변	고등학교 졸업, 트럭운전자격증 소지, 응급처치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적성검사를 통과해야한다.
질문7	자원봉사소방관들이 하는 일은?
답변	자원봉사소방관들은 대부분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끄는 일을 한다. 그들은 건물이나 진화나 구조의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산불 끄는 교육만을 한다.
질문8	자원봉사소방관들이 산불현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은?
답변	만약에 부상을 당하면 다른데 일을 하고 있으면 일하는 데서 보상을 받고 만약에 사망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험이라든지 보상이 나온다. 모든 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 한다
질문9	자원봉사소방관들은 일정 자격이 있어야 하나?
답변	자원봉사소방관이 되려면 퀵랜드 주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적인 학대 등 아동 성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블루카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곳의 자원 봉사소방관은 도심에는 없고 산불을 진화하기 때문에 농촌이라든지 시골에 거주한다.



질문10	화재나 구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확보율?
답변	보통 7분 안에 도착인데 거의 100%안에 도착한다.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그 시간 안에 다 도착한다. 위급한 상황일 때는 한 소방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소방관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빨리 가서 문제를 해결한다.
질문11	소방청장이 주지사의 관리감독을 받는지?
답변	소방청장은 주정부장관한테 보고한다. 주정부장관은 주의사당의 의원으로 호주는 의원들이 다 장관이다. 참고로 호주는 의원내각제이다.



[소방학교에서의 단체 사진]



[지진 상황 실습장]



[가스화재 실습장]



[소방학교에 대한 설명 청취]



[화재진압 실습을 마치고]



[화재진압 상황 실습]

## 6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

### 방문개요

- 날 짜 : 2019. 9. 21. (토)
- 장 소 : Queensland Goldcoast 케스케이드 공원 내
- 방문내용 : 한국전 참전 호주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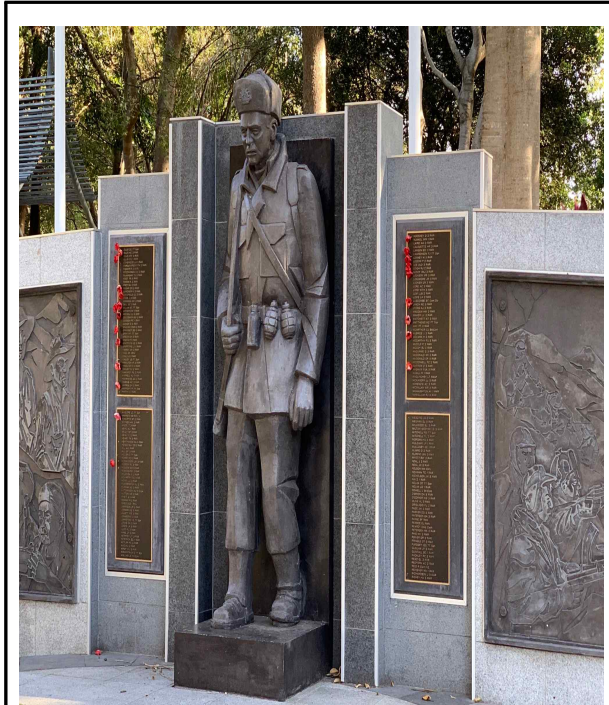
### □ 개 요

-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한국전 참전 기념비는 오스트레일리아 골드코스트 내 케스케이드 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는 한국전 당시 참전한 오스트레일리아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되새기기 위해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와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주정부의 지원, 그리고 현지 교민들의 성금으로 2011년 8월 20일 건립되었다.
- 호주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하여 육·해·공군 17,000여명을 파병했다. 희생 현황은 사망 339명, 전상자 1,216명, 포로 29명이다.

### □ 후 기

- 한국전 당시 우리나라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지만 자유 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령들에게 참배하고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바쁜 일정 중에서 방문하게 되었으며, 한국전이 남긴 교육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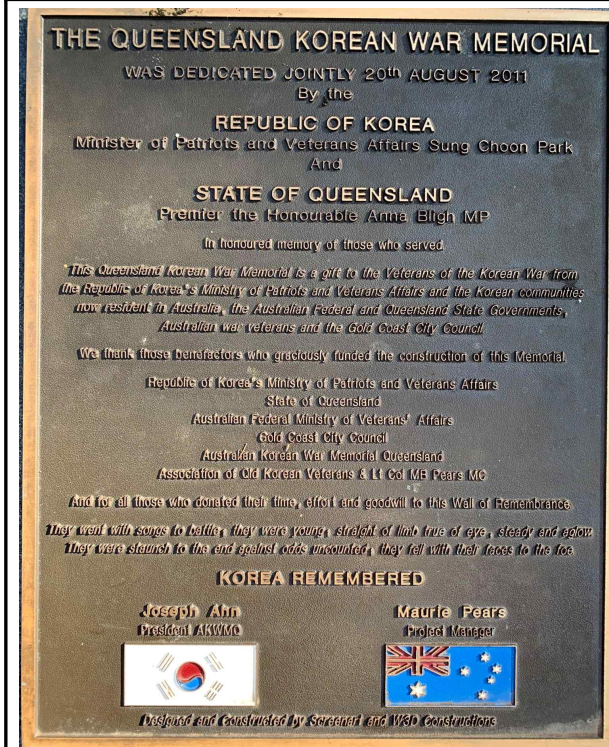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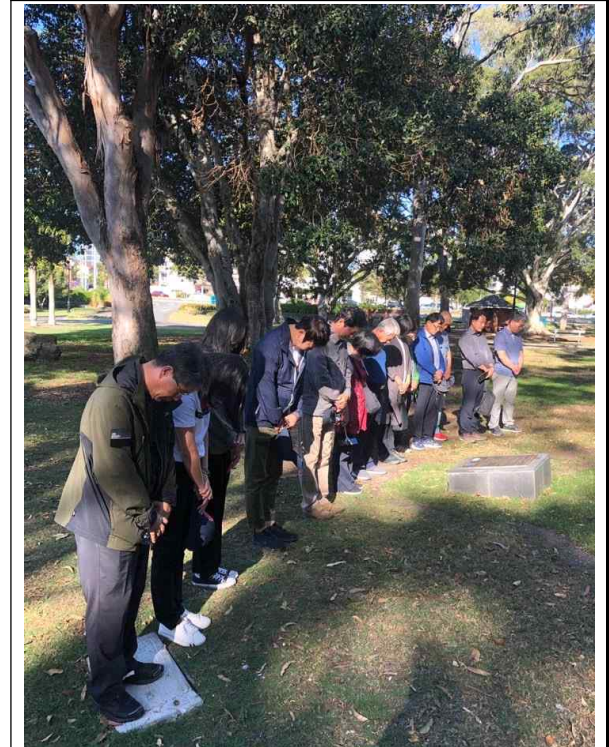
[참전기념비]



[기념비문- 한글]



[기념비문-영문]



[기념비 앞에서의 묵념]



IV

기타 사진모음



[터널화재 및 구조 현장 실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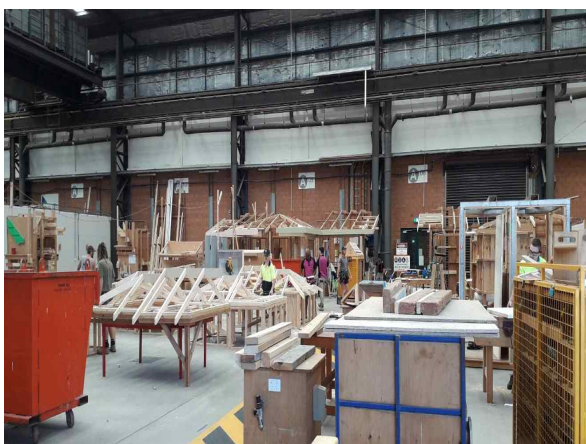
[세종시의회 및 세종시홍보자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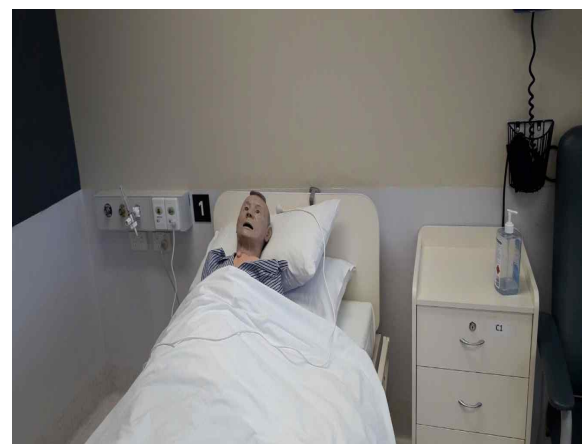
[Nambour Campus 목공실습장]



[SkillsTech 엔지니어링 실습장]



[SkillsTech 목공 실습장]



[SouthBank 간호학 실습 마네킹]



[SouthBank 설명 청취]



[목공 실습장 견학]



[원예실습장 설명 청취]

[그래픽디자인 실습장]

[Nambourk Campus]

[South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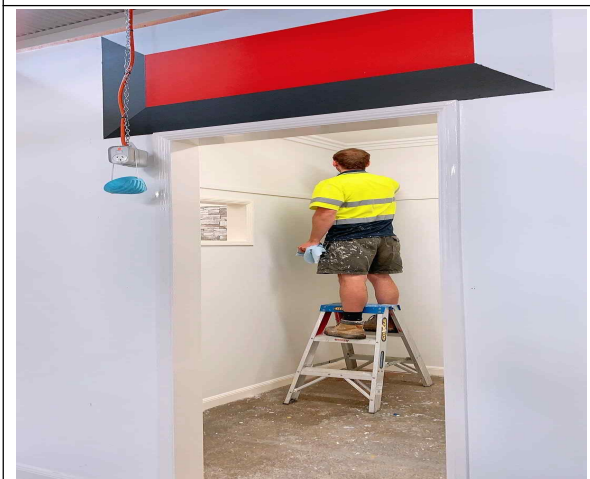
[소방교육훈련장 이동식 세트]



[소방학교 차량 전복사고 실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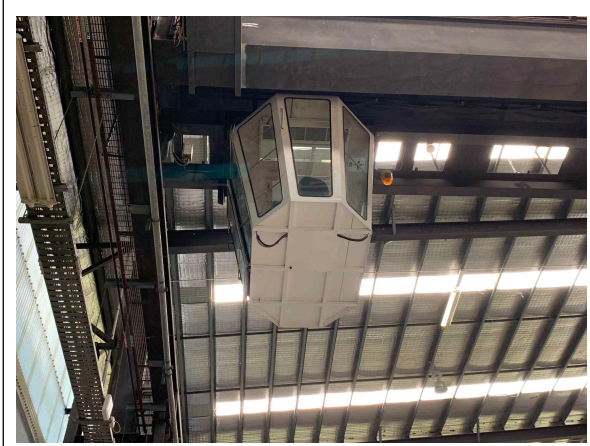
[페인트 실습장 설명 청취]



[페인팅 실습장]



[SouthBank Campus앞]



[실습장 안전지킴]





[Skillstech 세종시의회 및 세종시홍보자료 전달]



[Skillstech 설명 청취]

[Skillstech 목공 실습장]

[Skillstech 자동차 실습장]

[Skillstech 용접시뮬레이션 실습장]

[Skillstech 용접 실습장]

V

## 연수후기

###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소감문

상병현(교육안전위원장)

지난 9월 호주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다. 호주의 직업·진로 교육과 소방안전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좋은 기회였다.

TAFE QLD는 퀸즐랜드 주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대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퀸즐랜드 전역에 걸쳐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었고 130년의 긴 역사가 말해 주듯 전통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다.

처음 121명의 학생으로 출발해서 130년 동안 700만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졸업했다고 하니 평균적으로 매년 5만 명이 넘는 우수인재들이 호주의 산업현장으로 배출되었던 것이다. 이들이 호주의 산업전반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고 지금도 그 핵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TAFE QLD가 가르치는 교육 분야는 광범위했다. 500개가 넘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수준의 과정부터 준학사, 대학 과정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제공되는 교육은 모두 산업현장에 맞춰서 교육되고 있었고 학생들은 이론을 배운 뒤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선생님에게 배우고 연마하게 된다. 목표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할 때 바로 산업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호주 정부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산업계와 학교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계된 하나의 기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개 학교는 이론위주로 가르치고 현장에서

쓰이는 일부 기술만 학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TAFE QLD는 사실상 산업체의 입사교육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느낄 만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가르치고 있었다. 우리 교육에서도 이런 점을 반영하고 있지만 TAFE QLD처럼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TAFE QLD에는 매년 12만 명이 넘는 학생이 입학하고 약 4,000명 정도가 유학생이라고 한다. 4,000명의 유학생 중 10%인 400명이 우리나라 유학생이다.

TAFE QLD는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 규모가 컸고, 학비는 사립대학보다 비싼 편이었으나 호주학생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다소 저렴하게 수학한다고 한다. 유학생은 학기당 6,000호주달러에서 8,000호주달러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약 500만원에서 650만원의 등록금으로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제식교육, 현장실습 등으로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 또한 해소해야 할 문제이다. 호주의 기술직 임금이 연간 6,000만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임금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호주에서는 기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 주는 문화를 우리도 가져야 할 것이다.

퀸즐랜드 소방학교는 정유시설 옆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주유소, 지진, 고층건물 화재 등 여러 상황을 대비한 훈련장이 학교 내에 만들어져 있었다.

퀸즐랜드 주는 2002년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방안전에 대해 관심이 더 커졌으며, 화재대피 훈련 등과 관련되어 강화된 법이 2009년 제정되었다.

2002년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작은 마을 칠더스에서 배낭여행객 15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소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한국인 1명도 숨졌으며, 이 건물은 소방검사를 받지 않았고 창문도 침대 등으로 막혀 피해를 더 키웠다. 또한 담배연기로 화재경보기가 자주 울리자 화재경보기도 떼어낸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각종 큰 화재사고가 떠올랐다. 1999년 경기 화성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유치원생 등 23명이 희생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018년 의료진, 환자 등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당한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화재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미흡해 보인다. 개인과 정부 차원의 관심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퀸즐랜드는 소방청장 밑에 7개의 지역으로 나뉘 부청장이 있다. 퀸즐랜드는 면적이 넓지만 도심지역은 7분 이내 골든타임에 100% 도착한다.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와 비슷한 자원봉사자가 36,000명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이들은 대개 외곽지역의 산불진화에 투입된다고 한다. 화재, 구조, 구급이 많은 도심지역에는 정규 소방관을 배치하고 건물화재가 적은 대신 대규모 산불화재가 발생하는 외곽지역에는 자원봉사 소방관이 대응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원봉사소방관들의 자격 또한 아동성범죄가 없고 지역사회에서 신임 받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소방관에 대한 처우에 관심이 높고 많은 국민들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존경하는 것처럼 호주도 소방관의 명예를 크게 생각한다.

지난 4월 강원도 속초, 고성에서 큰 산불이 있었다. 소방력의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발령되어 전국 시도의 가용 소방력이 총동원되어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 이는 독립된 소방청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소방관

의 국가직 전환이 진행 중이다.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하도록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현재의 조직을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산불진화에 큰 역할을 한 산림청 산불진화대 소속의 직원들도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퀸즐랜드의 의용소방대처럼 꾸준한 지원과 관심으로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도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019년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와서

### 직업교육의 요람 호주 퀸즈랜드 tafe 골든타임 도달을 100% 퀸즈랜드 소방본부

#### 윤형권(교육안전위원회)

- 일시 : 2019.9.16.~22일 5박 7일간
- 장소 : 호주 퀸즐랜드 브리즈번
- 인원 :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5명, 의장 및 교육청, 시청 공무원 등 14명
- 교통 및 숙박 : 아래

9.16 08시40분 인천→홍콩 13시10분 CX415  
13시10분 홍콩→브리즈번 23시35분 CX157  
9.22 00시55분 브리즈번→홍콩 07시30분 CX156  
09시20분 홍콩 →인천 14시05분 CX410

#### 호텔

Mercure Brisbane 85/87 N Quay, Brisbane  
City QLD 4000

#### <표1> 오스트레일리아 및 브리즈번 정보

항목(단위)	수	량	비	고
국토면적(ha)	7억7,400만		한반도 면적의	36배
인구(명)	2,500만		2019년 통계청	자료
GDP(us달러)	1조3,234억 2,107만		2017년 한국은행	자료
경제성장률(%)	1.96		2017년 한국은행	자료
GNP(us달러)	5만3,799		2017년 한국은행	자료
Brisbane	인구 185만, 퀸즈랜드주의 주도(州都). 면적 5,900km <sup>2</sup> , 교육도시이며 사탕수수, 밀, 낙농품 집산지. 요트대회 등 해양스포츠 행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 1. 퀸즈랜드 직업학교

Queensland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TAFE)

9월17일(화)-19일(목) 3개 캠퍼스 방문

- Sunshine Coast Nambour QLD tafe campus
- South Bank campus QLD tafe campus
- Acacia Ridge QLD tafe campus

QLD tafe : QLD tafe는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서 깊은 교육 기관으로서 퀸즈랜드에만 8개의 캠퍼스가 있다. 이들 캠퍼스는 각각 특징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2개 분야, 90여개 프로그램).

QLD tafe는 호주 학생들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 유학생을 받고 있다. 유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자, 호주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을 이수한 자는 입학이 가능하다. 호주는 실업게고가 없다. 모든 학교가 일반고등학교다. 호주는 고교 1학년까지 의무교육이라서 고2학년부터는 QLD tafe와 같은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재학 중 일주일에 하루 정도 교육을 받는다. 1-2년 과정의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다. 취업후에도 QLD tafe에서 교육을 받고,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을 이수할 수도 있다.

QLD tafe는 졸업장을 따는 게 아니라, 이수만(pass) 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 서열화, 졸업장을 따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과 정열을 쏟아 붓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연간 12만명이 QLD tafe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이수자들 90%가 호주 전역에 취업을 하고 있다.



QLD tafe 해당 분야 현장에서 10-20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라야 교수가 될 수 있다. 교수가 된 후에도 년 간 8주 이상을 해당 직종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한 것이다. 매우 실용적인 발상이다. 또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최신 기술이나 미래 지향적인 산업 경영의 흐름을 파악해 교육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Sunshine Coast Nambour QLD tafe campus

QLD tafe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다. 200시간을 현장에서 봉사(최저 임금만 받고)활동을 이수해야 취업이 되는데, QLD tafe는 취업률 87%정도다.

QLD tafe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을 하면 영주권이 주어지고, 이민으로 이어지는데 유리하다. 호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업학교(tafe) 제도는 호주 사회 구성원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정 기간 직업학교 과정에서 언어를 익히고 사회 적응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직업학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호주 사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직업인들로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학생 중 한국 학생이 가장 많은데, 전체 QLD tafe 학생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학비는 대략 학기당 500-600만원이 든다. 방값은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데, 시내권(市內圈)일 경우 주거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당 10만원에서 30만원 선이나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곳은 이보다 저렴하다.



<사진1>퀸즈랜드 nambour campus에서 학생들이 목공 수업을 받고 있다.

브리스번에서 버스로 1시간 20분 정도 떨어진 Sunshine Coast city 외곽에 있는 Nambour QLD tafe는 목공, 전기, 자동차 기술, 건축, 그래픽 디자인, 실내건축디자인, 시각디자인, 실용음악 등 건설과 자동차, 원예, IT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공반 교실에서 만난 장아무개(36세 · 남)는 “한국에서 직업을 갖기 어려워 목공 기술을 배워 호주에 정착하려고 한다” 며 포부를 밝혔다.

QLD tafe는 유학생 뿐만 아니라 현지 호주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경력단절 여성이 새로운 직장을 잡고자, 은퇴를 앞두고 소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QLD tafe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간호사인 shay(26세 · 여)씨는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한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조경에 관심이 많아서 전직을 하려고 QLD tafe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호주의 QLD tafe는 호주 사회의 안전망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 ● South Bank campus QLD tafe campus



〈사진2〉 브리즈번 QLD tafe

브리즈번 시내에 있는 QLD tafe South Bank campus는 1-13층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간호, 치위생, 치기공, 요리, 미용과 이용, 건축 디자인, 실내장식, 비즈니스, 호텔관광, 스포츠 코치, 공연예술분야 등 90여개 직종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간호과정의 경우 9개월 정도 이론과 실습을 익히고 난후 250시간 정도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인턴십을 마쳐야 정식 간호사가 된다. 치기공과 치위생사도 간호사 과정과 유사하다. 호주의 병원에서는 남성 간호사가 여성 간호사수와 맞먹는다. 여성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호주사회가 반영된 것이다.

## ● Acacia Ridge QLD tafe campus

브리즈번 시내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Acacia Ridge QLD tafe campus는 자동차정비와 전기통신, 에너지, 용접, 건축 분야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년 간 2만 여명을 배출하고 있다. 자동차정비반은 유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편이다. 취업이 잘될뿐더러 임금 또한 높기 때문이다.

Acacia Ridge QLD tafe acacia campus에는 한국 유학생이 130여 명 있다.

특이한 것은 현지 학생들에게만 전기자동차 정비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는 않지만, 최신 기술은 호주 학생들에게 먼저 습득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QLD tafe acacia campus는 자동차 정비 관련 학과에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스폰서 역할을 한다. 정비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자사 자동차를 잘 알게도 하고 홍보를 제대로 한다. 아쉽게도 한국 자동차 메이커는 보이지 않았다.

퀸즐랜드에서 QLD tafe acacia campus가 가장 큰 규모와 최신식 설비를 자랑한다. 목공반 실습장은 마치 거대한 공장 같았다. 2천여 평의 실내 작업장인데, 먼지를 제거하는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분진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목조 주택을 일정 비율로 축소하여 조립하고 있는 것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유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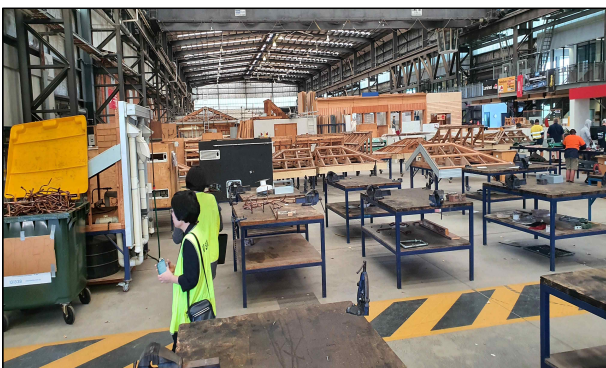
(사진3) QLD tafe acacia campus 주택건축 실습장



QLD tafe acacia campus에서는 용접 실습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가상용접장치’로 충분한 연습을 한다. 이 용접장치를 이용하면 용접 부위가 정확한지, 용접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초보자의 안전을 위한 매우 유용한 용접 교육 방법이기도하다.



(사진4)QLD tafe acacia campus 주택건축 실습장의 분진제거 시설.



(사진5)QLD tafe acacia campus 주택건축 실습장

## 2. 퀸즈랜드 소방학교

### Queensland Fire and Emergency Service(Qld qfes)

9월 20일(금)

콜든타임 7분, 콜든타임 도달률 100%

브리즈번항 칼텍스 정유시설 부지 내에 있는 Qld qfes는 퀸즐랜드의 소방관과 구급대원 양성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학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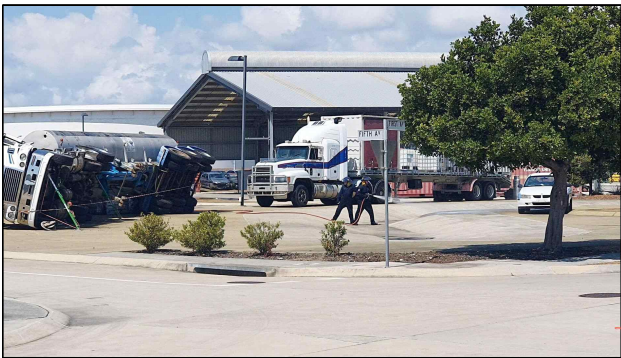
훈련을 위한 실제 크기의 주택, 주유소, 무너진 건물더미는 물론 항공기도 있다. 정유시설과 항구, 공항이 있는 퀸즐랜드 브리즈번의 특성을 감안한 소방교육이다.

Qld qfes는 전임 소방관이 약 2,200여명이 있고, 파트타임 소방관과 자원봉사소방관(한국의 의용소방대)이 3만5,000여명에 달한다. 농장이나 산불 등은 전적으로 자원봉사소방관들이 담당하고, 전임소방관은 화재, 구급, 도심지역의 각종 재난사고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파트타임 소방관제도이다. 파트타임 소방관은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되어 전임소방관들과 함께 상황 관리를 한다. 출동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Qld qfes에서 지급하므로 직장에서는 파트타임 소방관을 꺼리지 않는다. 파트타임 소방관은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살릴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해볼 만하다.

호주에서 소방관이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한다. 또한 트럭면허증 소지자도 소방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소방과 구급 3개월 과정을 거쳐 적성검사와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과하면 전임소방관이 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방관 선발 방식이다.

호주에서도 소방관은 시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직업이다.

Qld qfes는 퀸즈랜드주를 7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본부장이 행정, 소방안전, 구급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상부로는 장관급 소방안전 행정 담당관이 책임지고 있다. 본부장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방본부장을 지휘한다.



(사진6) 퀸즈랜드 소방학교 Qld qfes 훈련장. 기름 유출에 대비한 훈련을 하도록 만든 가상차량사고 현장

Qld qfes는 군과 경찰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과 훈련을 한다. 파푸아뉴기니의 소방관 훈련과 교육도 이곳에서 한다.

Qld qfes의 골든타임은 7분 정도이며 골든타임 도달율이 100%에 달한다.

## 제언

### 직업교육

교육의 본질은 한 인간이 소질을 계발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하고(직업, 직장), 자아실현을 이루게 하는데 있다. 호주의 Qld tafe는 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제도이며 교육의 목적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다. 일반계고, 실업계고, 특목고, 예체능고교 등 여러 종류의 고교과정

있지만, 2019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가 25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자 30만 명이 부족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기이한 현상이다. 청년들(고교생)은 임금이 많고 복지 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선호하여 오로지 명문 대학을 인생의 목표인양 삼고 있다. 재수와 삼수는 기본이란다.

고교졸업 당해년도 대학진학률이 약 70%에 달한다. 경제·정치 선진국인 독일은 대학진학률이 35%이며, 나머지 65%는 고교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다.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을 80%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입지옥’ 해방은 독일의 중소기업(히든챔피언 :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3위까지) 육성과 이에 따른 교육제도 개선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호주의 교육제도(직업교육 포함)는 독일 제도를 본받고 있다. 호주의 Qld tafe의 취업률이 90%에 달하는 것은 호주에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소기업이 많고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소기업도 임금수준이 대기업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국가정책이 절실하다. 세계 시장에서 특정 품목 점유율 3위까지의 중소기업을 히든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약 2,700여개의 히든챔피언 중 독일이 60%를 차지하고 일본이 20%, 나머지는 한국, 대만, 미국 등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청년실업, 대학입시지옥을 바로 잡으려면 히든챔피언을 육성하여야 한다. 15년 중장기 계획(5개년 3차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부총리급으로 격상 하여 예산과 권한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호주의 Qld tafe에서 배워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노동현장에서 동남아시아인들이 상당수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은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노동현장에 투입된다. 이렇다보니 건설현장, 공장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노동의 품질도 떨어진다. Qld tafe는 일정 기간 기술을 배우게 한 후 건설현장이나 중소기업, 농장 등에 노동자를 보낸다. 당연히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력이 담보된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일정 기간 교육하여 노동현장에 투입하는 Qld tafe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 후 북한 노동자를 국내 건설현장이나 중소기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Qld tafe 제도와 함께 도입 운영할 것을 제언한다.

세종교육청에서는 세종하이텍고와 세종여고 학생들에게 6주 과정의 Qld tafe에 입학을 지원 해주는데, 이런 단기간의 Qld tafe 과정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적어도 1년 과정을 거쳐야 언어 문제가 해결되고, 호주 각 직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사 파견과 같은 경우는 예산 낭비다.



“교육의 목적은 자아실현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체적이고, 심신이 건강한 인격체로서 직업을 갖고, 적응하도록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다.”

## 호주 해외연수를 다녀오며

박 용 희

추석 연휴가 지나고, 호주 해외연수가 있었다. 5박7일 일정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의장님, 집행부 공무원으로 모두 14명이었다. 9월 16일 집에서 새벽 3시 50분에 출발하여 의회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인천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 시간이 8시 40분이었으나 공항에는 여유 있게 6시 20분쯤 도착하였다.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 아침이어서 그런지 비행기에는 탑승객이 반 정도 안 되었다. 3시간 반 정도의 비행을 마치니 홍콩에 도착할 수 있었다. 홍콩 난타우공항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었고, 규모가 꽤 커보였다. 서양인 보다는 동양인들의 탑승객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고, 한 시간 반 정도 대기했다가 홍콩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10시간 반 정도를 비행한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으나 영화를 보면서 오니 견딜 만했다. 밤 12시가 다 되어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했고,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호텔에 도착하니 밤 한 시였다. 호텔 차창 밖으로 브리즈번시의 화려한 야경이 일품이었다. 원형의 놀이기구와 화려하게 장식된 교량, 그리고 대형 건물에 빛을 발사해 야경이 아름답도록 신경을 많이 쓴 듯 했다. 일찍 자야했으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아 새벽 3시 반쯤에야 잠을 잤다. 다행히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한 시간 빨라서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아침 6시가 되자 모닝콜이 울리기 시작했다. 호텔 조식은 7시부터 가능하였고, 일정은 8시 반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몸이 무겁고 피곤했지만,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다. 오늘의 공식 일정은 TAFE QLD Nambour Campus



방문이다. TAFE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와 대학 사이에 있는 과정으로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기술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서 하는 과정과 많이 닮아 있었다. 특이점은 퀸즐랜드 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호주 내국인은 물론, 워킹홀리데이 과정으로 온 타국 학생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었다. 또한, 인종과 연령, 성별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어 보였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토론식 수업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호주의 경우는 모든 연령층에게 진로교육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직업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직업을 갖기 위해서 오랜 시간 치열하게 준비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대부분 정년이 보장될 경우에는 퇴임 때까지 한 가지 직업을 고수하게 된다. 앞으로 백 세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평생 다섯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게 되는 시대가 될 것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직업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직업교육을 좀 더 개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연수단을 안내하는 육십을 바라보는 가이드도 예전엔 사업을 했으나 삼 년 전부터 가이드로 직업을 전환했단다. 경험과 적성을 잘 살린 성공적인 직업전환으로 보였다.

호주는 국토가 광활한데 비해 전체 인구가 2,500만 명을 약간 웃돈다. 인구밀도가 낮아 타국으로부터 이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교민도 현재 4만 명 정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아 양질의 취업이 쉽지 않다. 취업 재수생도 많고, 실업자도 많아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호주인들에게 부러웠던 점은 진로교육을 받으면 대부분 취업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었다.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취업을 위한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보다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경험과 TAFE 진로교육과정 중 실습기관에서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TAFE의 교수진은 대부분 청바지에 작업화, 그리고 TAFE의 유니폼인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TAFE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삼십 년 정도의 경력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고, 교육자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일 년에 일정 기간 동안 현장의 기술과 변화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교수진은 항상 현실에 뒤처지지 않는 신지식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선 교육시스템을 보면서 좋은 점은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TAFE 시설을 둘러봤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시설이 화려하진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전공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고 있었다. 견학하면서 교육과정을 지켜보니, 저런 정도의 교육내용이라면 얼마든지 우수한 진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화려함과 허세, 비능률을 뺀 실리 추구 위주의 교육과정이었다. 건축, 디자인 배관, 용접, 간호사, 치의 공, 자동차 정비, 원예, 목공 수업 등 모든 과정이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수업 이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에서 4년 동안 전공을 해도 이론과 실질에 있어서 제대로 습득이 되지 않은 채 졸업을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 보였다.

방문한 TAFE 곳곳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먼 호주까지 온 학생들이라서인지 야무지고 적극적으로 보였다. 온 지 삼 주밖에 안 된 학생부터 일 년 가까이 되는 학생도 있었는데, TAFE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다양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학생과 호주에서 대학을 다닐 학생, 취업을 할 학생으로 구분되었다. 호주에서는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서 세계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한국인 학생들을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눈치도 빠르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이란다. 타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린 학생들이 국격을 높이기 위해 애쓴다는 말을 들으니 대견하기도 하고, 타국에서 고생하

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다.

브리즈번 중심가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한국말 소리가 자주 들렸고, 얼굴 모습이 한국인 같아서 물어보면 한국인이었다. 호주에 적응을 하려면 먼저 언어 습득이 관건인 듯했다. 기본적인 언어가 받침이 되어야 소통이 되고, 수업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귀가 트이고, 입도 트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언어가 준비 안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 없이 방문하게 되면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세종에서도 하이텍고와 세종여고에서 TAFE으로 진로교육을 한 달 반 받고 오는 정책이 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방문했던 브리즈번은 계절적으로 봄이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상록수이기에 나뭇잎에 새싹이 돋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열대 기후였기에 우리나라에서 봤던 소나무, 고사리, 쪽갓, 근대, 대나무 등이 우리나라 것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컸다. 슈퍼 소나무, 슈퍼 고사리, 슈퍼 쪽갓, 슈퍼 근대, 슈퍼 대나무라고 해야 할 것 같았다. 전봇대로 많이 사용된다는 소나무는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조림을 한 곳도 많이 있었다. 코알라가 먹는다는 유칼리나무도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코알라는 유칼리나무 중에서 특별히 먹는 수종이 따로 있다고 한다. 기후의 영향으로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브리즈번은 예전에 목재 수출로 유명한 도시였다.

여러 번 목격한 것인데, 아주 굵고 커다란 나무에 다른 식물이 기생하는 경우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는데, 호주에서는 가끔씩 볼 수 있었다. 나무의 종류들이 우리나라와 많이 달라서 더욱 이국적인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관목에 빨강, 노랑, 보라 빛의 꽃들이 피고, 교목에도 흰색, 주황, 노랑, 보라, 빨강 등의 꽃들이 아름다웠다. 해외연수 중 날씨가 좋고,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행운이라고 한다. 연수기간 동안 잠시

두 번의 비가 내렸고, 대부분 날씨가 좋았다. 태양이 내리쬐릴 때는 머리 두피가 따가울 정도였고, 눈이 많이 부셨다. 그러나 그늘로 들어서면 이내 시원했고, 살랑바람이 불 때면 더욱 상쾌했다. 미세먼지가 없어 하늘이 푸르렀고, 마스크를 쓴 사람은 없었다. 거리도 상당히 깨끗했는데, 도시 중심가에는 광장을 날마다 물청소 한다고 했다. 미세먼지 없고, 공기는 쾌적하고, 햇빛이 빛나는 날씨에 다시 한 번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인간의 문명은 예로부터 해안가에서 발달해 왔는데, 호주의 브리즈번이나 골드 코스트도 마찬가지였다. 두 도시 모두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들어왔고, 골드 코스트 해변의 백사장은 칠십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했다. 해변에서는 일광욕과 해수욕, 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도심에는 높은 빌딩과 아파트들이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주택들이 많았고, 해변의 고급 주택지에는 집집마다 요트가 있었다.

공식일정 네 번째 날, 사리나 루소를 방문했을 때 요양시설을 견학할 수 있었다. 그날은 이벤트가 있는 날로, 직원들과 요양원 환자들이 피터 팬과 후크선장에 나오는 모자와 망토 등을 두르고 있었다. 이벤트 행사로 요양원의 분위기가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요양환자들은 두 부류로 보였다. 건강상 혼자서 걷고 운동도 할 수 있는 환자와 항상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주로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환자들이 있었다. 생활환경은 전체적으로 매우 고급스러웠고, 주변은 시골의 한적한 곳으로 풍경이 아름다웠다. 요양소에는 환자마다 개인적으로 방을 쓰고 있었고, 시설로는 TV와 냉장고, 침대, 소파, 의자, 샤워실 및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었다. 공동식당, 운동실, 영화감상실, 취미실, 의사와 간호사, 다양한 직원들의 보조로 병약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보였다. 요양원에 입실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국가 보조를 받는 계층과 개인적으로 5억 정도의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여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각 국가에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가장 빠른 국가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에 달한다. 2018년부터 고령 사회가 되었고, 2030년 이전에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게 된다. 출산율의 저하로 부양비가 증가하고, 건강, 빈곤, 일자리, 외로움 등은 노년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선진국들의 고령화에 대처하는 좋은 정책들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호주 방문의 목적이 우수한 직업교육을 살펴보는 측면도 있었지만, 호주의 소방관리 정책 견학을 위함도 있었다.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퀸즐랜드주 소방교육기관을 방문했다. 기관을 소개하는 장소의 현관 로비에는 각종 훈장과 업적들을 소개하는 사진과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물을 통해서 소방교육기관의 자부심이 전달되었다. 퀸즐랜드소방서의 위치는 칼텍스 정유공장과 접해 있었다. 칼텍스에서 소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 정유시설도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방서와 인접해 있으면,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퀸즐랜드소방서는 호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등 인근의 소방대원들의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교육시설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엄정하여 세계에서 유명한 소방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건물 속에서의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아파트, 주택, 사무실 등의 사고 시 다양한 상황에 따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정도의 시설이 있으면, 훨씬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함께 동참한 소방령에게 물으니 우리나라도 세종시 인근 공주시 유구면에 소방훈련 시설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다는 말을 듣고 안심되었다. 훈련소 곳곳에는 신규 소방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집중하지 않으면 훈련 중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견학 중 방해



가 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호주도 우리나라처럼 정식 소방관은 아니지만, 보조하는 인력이 있었다. 보조 인력들도 충분한 소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다. 요즘 호주에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단다. 소방 보조 인력들은 대부분 산불 진화에 투입된다고 한다. 호주에는 소방서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인 7분 안에 사고현장에 도착한다고 한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 철저를 기한다고 했다.

계단만 하더라도 각 계단 끝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서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도로에서 미끄러운 곳이 있으면 안전을 위한 깔판이 반드시 깔려 있었다. 호주에서는 안전의식이 높아 시민의 안전에 대한 규율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높은 벌금을 내야하고, 작고 사소한 규율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자는 큰 책임을 져야 하기에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소방서 방문 때에는 통역하시는 분이 유창하게 해 주셔서 소방기관을 방문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 도착하면 먼저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규칙적으로 신호등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었다. 차량 보다는 보행자를 우선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호주의 음식은 우리나라처럼 다양하지 않았다. 아침은 호텔에서 먹고 점심과 저녁은 현지식 또는 한식을 먹었다. 현지식은 보통 스테이크와 감자칩과 샐러드, 생선튀김과 감자칩과 샐러드, 햄버거 등에 음료를 마시는 것이었다. 스테이크와 감자칩은 다 먹기에 힘들 정도로 양이 많았다. 감자도 우리나라 보다 훨씬 큰듯했다. 감자칩의 길이가 꽤 컸다. 샐러드는 야채가 다양하지 않았고, 소스도 다채롭지 않았다. 생선튀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음식에 비교해 볼 때, 호주에서의 주식은 아주 단순했다. 이렇게 매 끼니를 비슷하게 먹었다. 한국 음식점도 두 번 갔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호주인들도 우리 한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인기가 많다고 했다. 호주의 물가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했다. 화폐는 호주달러를 사용했는데, 호주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 정도였다. 도로에는 다양한 국적의 차량들이 있었는데, 가끔씩 우리나라 차량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았다. 현대와 기아 차량이 그중 자주 보였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더 활발하게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외에서의 가이드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다행히 호주에서 만난 가이드는 주관이 뚜렷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이 강한 분이셨다.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뉴질랜드로 보낸 이후 합류를 했고, 현재는 다시 호주로 재 이민했다고 했다. 현재 자녀 삼남매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중에 있었고, 가이드 또한 삼 년 전부터 직업을 전환했다고 했다. 그동안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에 연수 내내 지루하지 않아 좋았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해박했지만, 호주 역사에 대해서도 깊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

호주인들이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골든코스트 내 캐스케이드 공원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었는데 일행을 이곳으로 안내했었다. 2011년 8월 20일에 건립된 기념비는 경기도 가평에서 가져온 돌에 “영원히 잊지 않으리”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호주군은 17,808명이 참전하여 1.4후퇴 때 가평전투에 투입되었고, 중공군과의 치열한 공방전에서 32명이 사망했고, 5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평전투는 호주군 역사상 가장 대승을 거둔 전투이기에 그 자부심이 크다고 한다. 당시 “썩썩이” 라고 불리던 비행기는 호주군들이 몰았던 전투기라고 했다. 가이드의 엄숙한 설명을 듣고 우리는 그 감사함을 묵념으로 표현했다.

호주인들은 세계 곳곳의 전쟁에 참전하여 숭고한 희생을 했음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마다 기념비를 세워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있단다. 가평전투에 참전한 부대는 현재 “가평부대” 로 부대 명을 변경하여 부르고 있고, “가평스트리트”, “가평데이” 를 지정하여 그 의

미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는 이곳은 영구보존기념비로 지정되어 관리된다고 했다. 호주인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고귀한 희생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새겼다. 앞으로 양국 간 우호관계가 더욱 공고해 지길 기대한다.

5박7일의 호주연수를 다녀오면서 작년 덴마크 연수와 비교도 해 보았다. 호주와 덴마크는 청소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국가적인 높은 인식과 교육시스템이 잘 수립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더 나아가 잘 정립된 교육체계를 갖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유학생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입시에 고통 받고, 체계적인 진로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두 나라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불안정한 시스템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해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 혼란과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중에서 장점은 적극 살려야겠지만, 단점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 세종의 경우에는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선진국의 좋은 교육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세종은 내년부터 제2특성화고가 개교하여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기존의 하이텍고와 세종여고의 특성화 계열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여야 한다. 이번 호주연수는 학생들이 좀 더 밝은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종형 진로교육정책을 모색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 호주 퀸즐랜드 공무국외연수 소감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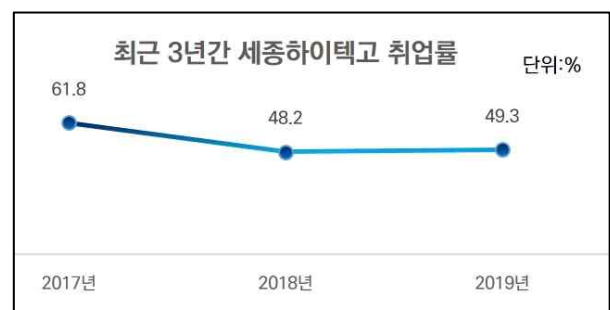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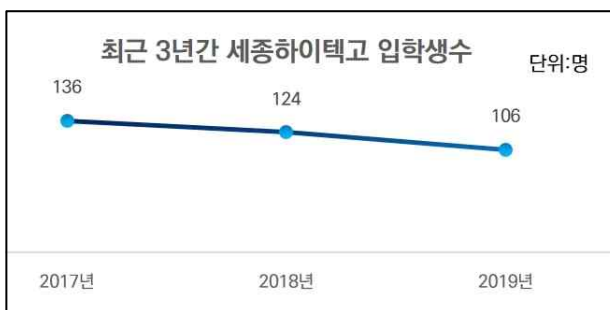
의원으로서 공무국외연수는 매우 부담되는 업무 중 하나이다.

공무국외연수에 쏟아지는 안 좋은 시선은 뒤로하고 무엇을 보고 배워 우리 시에 적용할지,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매우 고민된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 교육정책, 안전정책에 부족한 부분을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았다. 이미 준비된 자료, 정보도 많지만 실제 현장을 한번 보는 것이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어떤 것을 봐야할지 정하는 선택의 순간 많은 고민이 된다. 소중한 기회에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선택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볼 것인지 토의했다. 그 결과 호주의 직업교육과 소방안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뜻이 모아졌다.

평소 우리 시에 있는 특성화고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특성화고에 매년 약 8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몇 년째 미달인 입학 인원, 졸업생의 취업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시된 현황만 보더라도 특성화고의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어려

움이 학교, 교육청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직업교육 전체적인 틀은 물론 사회문제에서도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호주의 직업 교육 사례를 살펴보는 이번 기회가 더 중요했다.

이틀간 방문한 TAFE는 주립기술전문대학이다. 기술 중심의 직업교육을 하고 있고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입학하여 기술을 배우고 취업하게 된다. TAFE 과정은 우리나라의 폴리텍 대학과도 비슷한 모습이다. 폴리텍 대학도 전국에 36개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7만 여명을 교육 훈련 시켜 배출했다.



치기공 교육훈련



목공 교육훈련

TAFE에서 관심이 있게 본 부분은 교수진과 학과였다.

먼저, TAFE QLD 교수진은 산업현장에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산학겸임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 운영이 호주 TAFE처럼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 오랫동안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친 선생님이 있지만 그보다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기본 교과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실제 기술교육은 산업체 현장의 노하우가 풍부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초빙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을 빠르고 쉽게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우리 시의 특성화고도 미래지향적이고 각광 받는 산업의 학과체  
계로 개편이 절실해 보인다. 물론 현재 화학, 기계 등 전통적이고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학과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학  
과는 유지하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학과도 육성해야 한다. 특성화고  
에는 지역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전공분야가 있어야 하고 졸업생들이 지  
역의 산업체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다양한 학과에서 소수정예의  
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 교원수  
급문제, 실습장 등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언젠가는 풀어야 하고 그 방  
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10월 말경 우리 시 직업계고 3학년 학생 6명 정도가 호주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을 시작한다. 직업계고 학생에게 글로벌 현장 체험의 기회  
를 주는 것은 좋지만 연수기간 등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어학교육, 직무교육,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각 2주 정도씩 6주간 운영하게 되는데 기간이 짧아  
글로벌 체험과 기술습득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글로벌 현장학습 기간은 최소 1학기에서 1년으로 늘리고 현장학습을 원하는  
학생은 집중적인 어학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이 되는 경우 선발하여 실제  
해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퀴즐랜드 소방학교를 방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큰 사건사고로 소방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소방공무원의 국  
가직 전환, 골든타임 도착율 등은 항상 이슈다. 이런 관심은 소방조직을 바  
라는 보는 시선이 단순히 불을 끄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조직으로 바뀐 것이라고 본다.

퀴즐랜드 소방에서 관심 가는 부분은 자원봉사 소방관이었다. 퀴즐랜드에는  
전문소방관과 파트타임 소방관이 각각 2,100여명이 있다. 그 외에 약 3만  
6,000여명의 자원봉사 소방관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건물화재나 구조가



아닌 산불 진화에 특화되어 있다. 퀴즐랜드의 인구가 500만 명이므로 인구 1만 명당 72명이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원봉사 소방관은 산불진화에 투입된다고 한다.

우리 시에도 64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 중이다. 인구 1만 명당 약 19명꼴로 퀴즐랜드의 자원봉사자보다 그 비율이 낮은 편이기는 하나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우리 시는 소방공무원 1인당 관할면적이 특·광역시 중 가장 넓어 소방 업무 보조를 위한 의용소방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동지역의 의용소방대원수는 1만 명당 4.50명에 불과해 재난현장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소방학교 현황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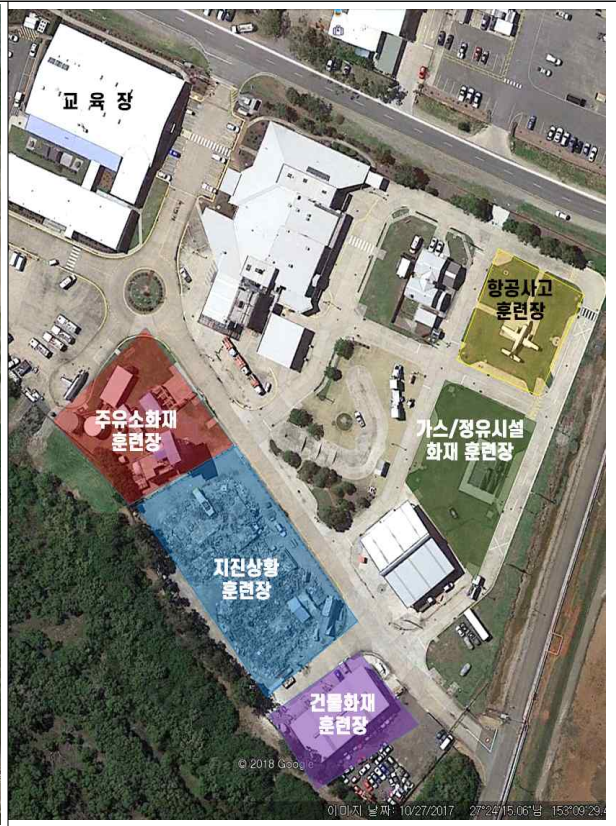
지진상황 훈련장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방학교가 정유시설 옆에 위치해 있었다. 정유시설의 부지를 임대 받아서 훈련하는 대신 정유시설의 직원들을 교육시킨다고 한다. 또, 화재에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정유시설 옆에 소방학교를 설립하여 훈련하고 비상시 출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퀵랜드 소방학교 위치



퀵랜드 소방학교 훈련장 배치



가스시설 화재 실습 현장



정유공장 화재 실습 모형

이번 공무국외연수로 호주의 직업교육과 소방안전에 대해 살펴보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에서 보고 배운 점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시 교육정책, 안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산학연계가 잘 이루어진 호주 퀸즐랜드의 직업 교육 현장을 견학하다

손현옥(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시의원이 되고나서 하이텍고를 교육안전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학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학부모들의 우려는 세종하이텍고는 3년연속 신입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다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많아지는 등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하이텍고는 그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신  
청을 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는 줄어  
들고 있지 않고 하이텍고의 위기는 계속 진행 중이다.

하이텍고의 이런 위기, 더 나아가 세종시의 특성화교육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은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업이 잘 이뤄지지 않은 어려움, 학교에  
서 배운 내용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것 사이의 괴리, 학교에서의 교육과  
현장으로의 취업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듯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종시의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또 전국적으로 특성화고 내실화  
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어 직업교육의 활성화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고민을 이어가던 중 선진적인 직업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받는 호주의 사례에서 뭔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019년 올해의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지  
를 호주 퀸즐랜드로 정하게 되었다.

퀸즐랜드 주에 위치한 TAFE을 보며 우수한 직업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세종시의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퀸즐랜드 주는 세종시교육청이 호주 퀸즐랜드 TAFE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매년 하이텍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글로벌현장학습을 보내고 있는 등 우리 세종시와 인연이 깊다.

올해도 5명의 학생들이 퀸즐랜드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가기로 되어있다고 한다.

국외출장을 갔던 9월 16일과 22일까지의 일주일간은 제57회 임시회가 막 끝나고 한 회기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바쁜 일정을 보내던 때였지만 세종하이텍고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었다.

작년 코펜하겐으로 국외 출장을 갔을 때는 방문할 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전 공부를 하고, 일정도 하루에 2곳 이상의 기관 방문을 하는 등 조금 벅찬 일정이긴 했다. 그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날은 별로 없고 대부분 걸어 다녔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았었는데 이번엔 거꾸로 세종시의 직업 교육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가는 방식을 택했고 거리가 있어서 매일 버스로 이동을 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출장은 모두들 열심히 질문하고,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들었던 열의가 가득했던 출장이었다.

방문한 기관마다 우리들의 열의에 놀라고, 하나라도 더 열심히 설명해 주려고 했다. 심지어 가이드와 통역하시는 분들조차도 오는 날까지도 너무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인사를 전해왔을 정도였다.



## [TAFE]

이번 공무국외출장중 주로 방문한 곳은 퀸즐랜드 주의 TAFE으로 방문했던 5개의 기관 중 3곳이 TAFE였다.

TAFE은 호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이며, 우리가 방문한 곳은 TAFE Queensland라 해서 퀸즐랜드주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었으며 퀸즐랜드 주 전역에 걸쳐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다.

TAFE은 주립전문대학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부터 준 학사 및 대학과정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다른 주에는 각각의 TAFE이 운영되고 있지만 퀸즐랜드 주는 하나의 TAFE에 여러 개의 캠퍼스가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한다.

처음 운영된 이래 130년 동안 700만 명의 학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제공 500개가 넘는 코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 그 역사와 그 다양성을 짐작할 수 있다.

TAFE의 가장 큰 장점을 꼽는다면 바로 산학협력과 산학연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AFE은 산업이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산업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TAFE의 교수진은 산업현장에서 10년~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가 가르치고 있으며 교수들은 1년에 한번 씩 산업현장을 2주정도 둘러보고, 현재 산업계에서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지역에서 온 교수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등 실무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업현장과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호주정부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과정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과정이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고, 과정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다.

여기서 가장 부러웠던 점은 산업현장과 똑같이 실습장이 구성되어 있는 등 산업현장을 그대로 학교에 옮겨온 듯한 교육환경 덕분에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 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학연계가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직장인들도 TAFE을 수료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임금을 훨씬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산업현장과 TAFE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또 확인할 수 있다.

자국민의 교육비는 정부지원금으로 많은 부분을 충당하는데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학비를 빌려주고 취업하면 갚아 나가고 실직을 하게 되면 상환을 중단하고 다시 재취업하면 또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학비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학자금 대출이 연상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점은 TAFE의 학생의 경우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의 부담이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훨씬 덜하다는 것이다.

각 TAFE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그러한 다양성이 큰 장점이라고 여겨지는데,

선샤인코스트에 있는 TAFE Queensland Nambour Campus 에서는 목공, 원예, 그래픽디자인 실습장등을 보았다. 실습장들이 하나같이 큰 규모와 좋은 시설을 갖췄는데 넓은 땅과 주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만난 한 26세의 현지 여학생은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전직을 위해 원예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아주 만족한다고 했다.



이처럼 TAFE은 전직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과정에 참여하고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 부러웠다. 이러한 점은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브리즈번에 있는 TAFE South Bank Campus 에서는 간호, 치위생, 치기공 실습장등을 견학했으며 영어연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TAFE에 유학 온 학생들 중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견학 하는 동안 한국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영어어학연수를 온 한국 유학생 부부를 만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목공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한국유학생, 자동차엔지니어링 실습장에서 만난 한국유학생들과도 얘기를 나누고 격려도 해주었다. 이들 모두 각자가 배우는 과정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다.

한편 브리즈번에서 이동 중에 TAFE 학생들이 만든 빵을 판매하는 행사를 보았고, TAFE 학생들이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도 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다.

우리 세종시도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이 작업 만든 빵을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거나 학교협동조합등에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Sarina Russo Institute(SRI)]

호주의 Sarina Russo Institute(SRI)라는 사립교육기관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SRI는 브리즈번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어 학교 및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교육 법인으로 사회복지 관광 및 호텔, 직업기술과정 분야가 특징이다.

SRI에서는 모든 코스를 마치기 위해서 매주 정해진 시간만큼 현장 실습을 해야 한다. 또한 SRI는 교육기관과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취업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에 TAFE Queensland Arcasia-ridge Campus와 퀸즐랜드 소방학교를 방문 했다.

칼텍스 정유시설과 인접한 곳에 있는 소방학교는 퀸즐랜드 소방관과 구급대원 양성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먼저 소방학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물안에서의 화재진압을 위한 훈련장, 자동차,기차,항공기,선박등에서의 화재진압 실습장, 지진상황실습장, 가스화재, 터널 및 구조현장 실습, 차량전복사고 실습장등을 견학했다.

호주는 들판이 많고 국토가 넓다는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의용소방대와 같은 조직이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간의 일정을 통해 호주의 직업교육과정에서의 다양성, 산업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왜 호주가 진로교육 선진국인지 잘 알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 세종시도 그런 선진적인 모습들이 도입되었으면 하지만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의 학생들도 퀸즐랜드의 학생들처럼 폭넓고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진로교육의 혜택을 받게 하려면 교육청과 시가 함께 나서 노력해야 하고 그 사이에서 의회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마저 들었다.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전공과목 교사를 최소로 모집하고 학과와 관련된 산업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자를 강사 등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고, 특성화고 졸업예정학생들이 인턴ships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 발굴에도 힘써야할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